

“시와 인문학은 좋은 세상 향한 불빛”

석연경 시인, 6번째 시집 ‘탕탕’ 세계·인류 문명에 대한 성찰 담아 순천시 12년째 인문연구소 운영 ‘연경’ 창간해 인문학 대중화 노력



석연경 시인

“돈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쓰면서 운영을 해왔어요.”

AI시대가 도래하고 챗GPT가 상용화되면서 창작, 인문학 분야 등은 점점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어떤 이는 역사적으로 인문학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고 말하기도 한다.

순천에서 12년간 인문문화예술연구소를 운영하며 인문학 강연, 문예창작 강의, 책 읽기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석연경 시인. 그것도 모자라 시인은 2년 전부터는 인문학 전문 잡지 ‘연경 然景’을 창간해 인문학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가난한 시인에 가난한 선생인지는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그가 최근에 6번째 시집을 펴냈다. ‘인문학’을 모티브로 10년 넘게 사비를 들여가며 연구소를 운영해오는 것도 모자라 인문잡지를 2년 넘게 발간해오는 저력은 무엇일까. 무엇이 그를 ‘돈 안 되는 일’에 매진하게 하는 것일까.

“때로는 고통이 나를 지그시 누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길을 쉬지 않고 가는 이유는 시와 인문학은 소박함과 위대함을 동시에 품고 있기 때문이죠. 시와 인문학이 모이면 세상을 구원할 수도 있다고 나는 믿고 있어요.”

그의 말에 어떻게 답을 해줘야 할지 몰랐다. 기자 또한 시와 소설이 문학이 그리고 인문학이 하여 세상을 구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다. 그런 생각으로 가슴이 뛰었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오늘의 시대는, 더욱이 모든 것이

계수되고 실적으로 치환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말처럼 쉽지 않음을 절감하고 있다.

이번에 석 시인이 펴낸 시집 제목은 ‘탕탕’. ‘세계와 인류문명에 대한 성찰이 담겨 있다’는 말에서 시인의 지향점이 어느 정도 가늠이 되었다.

그는 “인간의 과도한 욕망과 폭력성으로 비정상적으로 훼손된 지구와 인간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다”며 “생태 위기와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쓴 시도 몇 편 있다”고 했다.

시집 제목 ‘탕탕’이 특이하다고 했더니 “사랑 안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시 안에 사랑이 있었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경철 평론가는 이를 두고 “일즉전 다즉일(一即全 多即一)’의 화엄세계를 간결한 사랑으로 보여주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번 시집의 또 하나의 특징은 시인의 확장된 세계관을 보여준다는 데 있다. 우주적인 스케일로 근본적인 인류의 삶과 문화를 접근했는데 기독교



를 비롯해 불교, 도교, 유교 등 종교철학과 과학이 녹아 있다.

시에는 인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사랑이 제시돼 있다. 그는 “사랑 안에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 낱고, 너그럽게 보듬어주고, 키워주는 모성성이 기본이다. 여신의 이미지가 등장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고 말한다.

“하얀 깃털 눈부신 날개는/ 바다에 하얀 꽃도장을 찍으며 날아와/ 구름과 별빛의 언어를/ 침묵으로 읊조리시오// 배옥의 뒷문이 열립니다/ 비단 자주 이불 깔린 대지의 아랫목에/ 알 길 없는 깊이를 품은 옥양목 여인이 있습니다/ 흰동백꽃의 깊이 있는 게 있다가지요/ 별에서부터 뿌리를 지나 지구의 해까지...”

“하얀, 흰 동백”은 우리 삶을 운영하는 에너지를 묘사한 작품이다. 어떤 화염의 세계를 상징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주와 신의 기운처럼 다가온다. 특히 ‘알 길 없는 깊이를 품은 옥양목 여인’이라는 구절은 모든 것을 품거나 포괄하는 상징으로 수렴된다.

시인은 인문학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시 기획도 하고 있다. 연구소 건물에 작은 갤러리가 있어 시화, 사진, 그림, 서예 등 다양한 장르 작품도 전시한다. 인문과 문화, 예술 다양한 영역을 오가며 문화의 향기를 지역사회에 퍼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틈틈이 시를 쓰고 인문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는 “나에게 시와 인문학은 세상 만물과 더불어 잘 살아갈 바를 나누며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불빛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를 비롯해 불교, 도교, 유교 등 종교철학과 과학이 녹아 있다.

시에는 인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사랑이 제시돼 있다. 그는 “사랑 안에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 낱고, 너그럽게 보듬어주고, 키워주는 모성성이 기본이다. 여신의 이미지가 등장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고 말한다.

“하얀 깃털 눈부신 날개는/ 바다에 하얀 꽃도장을 찍으며 날아와/ 구름과 별빛의 언어를/ 침묵으로 읊조리시오// 배옥의 뒷문이 열립니다/ 비단 자주 이불 깔린 대지의 아랫목에/ 알 길 없는 깊이를 품은 옥양목 여인이 있습니다/ 흰동백꽃의 깊이 있는 게 있다가지요/ 별에서부터 뿌리를 지나 지구의 해까지...”

“하얀, 흰 동백”은 우리 삶을 운영하는 에너지를 묘사한 작품이다. 어떤 화염의 세계를 상징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주와 신의 기운처럼 다가온다. 특히 ‘알 길 없는 깊이를 품은 옥양목 여인’이라는 구절은 모든 것을 품거나 포괄하는 상징으로 수렴된다.

시인은 인문학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시 기획도 하고 있다. 연구소 건물에 작은 갤러리가 있어 시화, 사진, 그림, 서예 등 다양한 장르 작품도 전시한다. 인문과 문화, 예술 다양한 영역을 오가며 문화의 향기를 지역사회에 퍼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틈틈이 시를 쓰고 인문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는 “나에게 시와 인문학은 세상 만물과 더불어 잘 살아갈 바를 나누며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불빛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해설 더해진 명창들의 ‘판소리’

광주시립창극단, 27일 광주예술의전당 판소리 감상회



가야금 병창 이정주(왼쪽), 소리꾼 정승기. <광주시립창극단 제공>

“자라 등에 달을 실어 우리 고향을 여서 가세 지 달을 다 보내고/오월 단오일은 천중지가절이요 일 지지창외라”(춘향가 ‘강상풍월’ 중)

광주시립창극단(이하 창극단)이 2024 기획공연 ‘판소리 감상회’를 오는 27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펼친다. 공연은 춘향가부터 가야금 병창, 흥보가, 심청가 등 판소리 다섯 바탕 눈대목 등에 해설을 곁들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소리꾼 정승기가 들려주는 춘향가 중 ‘박석치 대목’으로 막을 연다. 이몽룡이 장원급제 후 거지 행색을 하고 남원으로 내려와 지역을 살피던 중, 농부들을 만나 정세를 묻고 춘향과 처음 만났던 광한루에 방문해 심경을 노래하는 대목이다.

한양대 국악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한 정승기는 제22회 서편제 보성소리축제 일반부 대상 등을 수상했다. 현재 창극단 장악부 상임단원.

호남의 지명을 넣어 노래한 단가 ‘호남가’, 흥보가 중 보은표 박씨를 모시고 흥보집까지 오는 여정을 그린 ‘제비노정가’는 가야금 병창으로 들을 수 있다. 적벽가 중 ‘화동도’는 공명이 오나라 장수 서성과 정봉을 무찌르는 장면을 표현한 것으로 이정주가 들려준다.

국가무형문화재 가야금산조 및 병창 이수자 이정주는 현재 창극단 장악부 상임자석으로, 제28회 김해 전국 가야금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전남대 음악교육과 겸임교수 등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심청가 중 단가 ‘강상풍월’은 호수 위에서 유유자적하는 강호한정을 노래하는 작품이다. 맹인 잔치를 표현한 ‘황성 올라가는 대목’도 대퍼토리에 있다. 소리는 전남대 국악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창극단 장악부 상임단원으로 있는

김다운이 맡는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 박승희가 해설, 김준영이 고수로 출연한다.

박승희 창극단 예술감독 직무대행은 “예향 광주를 표현하고 광주의 전통문화예술을 보존, 전승하는데 ‘판소리 감상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올해 공연은 창극단 단원만으로 구성해 공연의 의미를 더하고 관객들과 교감을 이끌어내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판소리 감상회는 이번 공연을 시작으로 6월 26일, 8월 28일, 9월 25일을 비롯해 11월 27일 총 5회 진행할 예정이다.

전석 1만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목요콘서트’ 빛낼 지역 예술단체 공모 광주문화재단, 22일까지

올해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공연을 펼칠 연주단체를 모집한다.

광주문화재단은 ‘목요콘서트’로 운영돼 온 공연을 올해부터는 ‘목요콘서트’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목요콘서트’는 오는 5월 2일부터 11월 21일까지(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진행되며 선정된 단체는 출연료 250만원(1회 공연)을 비롯해 공연장 및 부대시설 이용, 공연 안내 보조인력 등을 지원받는다.

신청서는 20일-22일(오후 6시 도착분)까지이며, 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접수하면 된다.

이번 목요콘서트 공모 신청 자격은 역량 갖춘 광주지역 소재 전문 예술단체 및 청년 신진 예술단체(출연진 5명 이상 10명 이하)로 60분 이상 80분 이하 클래식 음악 프로그램 구성, 소공연장 무대에 적합한 공연이 가능하다.

문화재단은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생태계 조성



지난 2023 목요콘서트(광주클라리넷 앙상블) 장면. <광주문화재단 제공>

을 위해 ESG경영과 문화를 통한 지역사회 공헌 실천 등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객석의 10% 이상(약 10석 내외)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를 위한 무료 좌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최종 공모 선정 단계(총 18개)는 오는 4월 1일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발표될 예정이다.

박경동 기획협력팀장은 “올해도 지역의 예술단체, 청년 신진 예술단체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 여성들의 삶’ 기록으로 남긴다

여성재단, 아카이빙 사업...다음달 5일까지 구술자 모집

가사노동은 나름의 전문성과 인내가 필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살림’이나 ‘집안일’로 치부되며 평가절하돼 온 경향이 있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통계청 생활시간 조사 자료’ 및 ‘국민연금공단 가입자 현황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수행하는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약 2억여 원에 이를 정도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은 올해 ‘광주여성 생애구술사 아카이빙 사업’ 일환으로 가사노동자로서 일한 경험이 있는 지역여성 구술자를 모집한다. 18일부터 4월 5일까지 재단 사업운영실로 접수.

“광주여성 생애구술사 아카이빙 사업”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해 온 여성들의 삶을 수집 및 기록해 지역민들과 공유하는 프로젝트다.

재단은 2021년 ‘방직공장 여성노동자 구술기록’에 이어 2022년 ‘전통시장 여성상인 구술기록’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올해는 ‘그림자 노동’이라 불리는 가사노동의 역할과 시대적 변천사, 여성의 삶과 자취를 기록하겠다는 계획이다.

식모, 파출부, 가사도우미 등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여성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11월께 생애구술사 단행본 발간과 집담회, 생애 구술 토크쇼 등이 예정돼 있다.

김경태 재단 대표이사는 “다방면에서 활동해 온 여성들의 삶이 온전히 기록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사업이다”며 “지역민과 함께 여성의 역사를 기록하고 공유하는 작업에 주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 KIBO | 02-5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